

M 국에서 드리는 첫 기도 편지

2026 년 11 월 2 일

안녕하세요,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,

저는 이제 M 국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며, 동시에 낯선 땅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. 아버지의 부르심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요.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저도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. 한 번도 마음에 품어 본 적 없던 땅이지만, 아버지께서 "가라" 하신 이 자리가 이제는 확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.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써 내려갈 일들이 너무나 기대됩니다.

"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,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" (마태복음 9:37–38)는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섬기게 되었습니다. 그곳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난민들을 먼저 섬기며, 서로 다른 민족과 신앙을 지닌 이웃들 — 오랜 전통 신앙을 따르는 이들, 종교가 곧 삶이자 정체성인 이들, 또 다른 뿌리를 가진 이들 — 을 만나 예수님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.

오랜 시간 교회와 이웃, 그리고 열방을 함께 섬기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나누어 온 형제 자매님들께서, 이 길을 기도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용기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M 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삶과 사역을 위해 몇 가지 기도제목을 나눕니다.

기도 제목

1. 집을 비롯해 M 국 정착에 필요한 것들이 잘 준비되도록

2. M 국에 정착하지만, 광역 선교사로서 다른 열방을 섬기는 사역도 이어 갑니다. 3 주 뒤에 있을 이웃 나라 I 국에서의 ETI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.

3. 영어 교육과 미술 교육으로 난민학교들을 섬깁니다. 특히 각 학교에 맞는 새로운 미술 커리큘럼을 세워 가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급이 이어지도록

4. 맡기신 섬김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건강이 지켜지도록

5. 미국에 있는 남편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동행을 이어 가도록

함께 걸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,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.

© 2026 Abigail & Missions · One step, walked by faith.